즉시 배포용: 2017 년 10 월 1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엠파이어스테이트 구호복구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보급품 주요 선적분 푸에르토리코 도착 발표

물 283,000 병, 기저귀 85,000 개, 아기 물티슈 42,000 개, 이유식 40,000 통, 통조림 15,000 개, 태양등 8,600 개 이상의 보급품을 지난 주말 JFK 발 항공편 3 대로 공수

TIDAL X: 푸에르토리코 구호사업(TIDAL X: Puerto Rico Initiative)에서 기증한 화물기 2 대와 JetBlue 항공편 화물칸을 통해 보급품 운송

뉴욕주 국토안보부 Roger Parrino 커미셔너, 보급품 배급 감독을 위해 지상 근무 중

사진은 여기를 클릭하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25,000 여 파운드 분량의 물과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통조림, 건조식량, 주스, 태양열 전등을 포함한 보급품을 담은 주요 선적분이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모금소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기부한 이 보급품은 향후 며칠간에 걸쳐 이 섬의 대상 지역사회에 배급됩니다. 이 보급품은 TIDAL 에서 전세 계약한 화물편 2 대와 JetBlue 여객편 화물칸을 통해 수송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국토안보부(State Homeland Security) Roger Parrino 커미셔너를 파견하여 모든 보급품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배급되도록 해당 작업을 지상에서 감독하게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바, 우리 주는 허리케인 마리아가 남긴 파국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푸에르토리코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놀라운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되, 복구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하지만, 뉴욕 주민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 과정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섬이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재건될 때까지 우리 미국 동포들을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글로벌 음악엔터테인먼트 회사인 TIDAL 은 자체 구호사업인 TIDAL X: 푸에르토리코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747 화물기 2 대를 전세 내어 지난 토요일 첫 번째 항공편과 어제 두 번째 항공편을 통해 총 400,000 파운드의 보급품을 수송했습니다. JetBlue 에서는 지난 토요일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한 여객편의 화물칸에 실어 추가로 25,000 파운드 분량의 보급품을 수송했습니다. 이번 선적 세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 283,000 병(500 밀리리터 들이)
- 기저귀 85,000 개
- 아기물티슈 42,000 개
- 이유식 40,000 통
- 통조림 15,000 통
- 주스 팩 15,000 개
- 태양등 8,600 개
- 건조식량 6,300 파운드

또한, TIDAL 은 추가로 100,000 파운드의 긴급 구호품을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운송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TIDAL 독지 활동을 도운 Roc Nation 의 Dania Diaz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IDAL X: 푸에르토리코 구호사업(TIDAL X: Puerto Rico Initiative)에 대한 사랑과 후원의 분출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이러한 위난의 시기에 빠진 푸에르토리코 가족들을 돕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젯블루(JetBlue)의 Robin Hayes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일간 35 가지 방법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돕는 구호복구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등 그간 JetBlue 가 진행한 구호 지원 과정에서 Cuomo 주지사께서 보여주신 지속적인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께서 계속해서 푸에르토리코의 긴급한 구호 필요성을 강조해주신 덕에, 우리는 뜻이 맞는 수많은 단체와 연계하여 자체 항공편에 긴요한 보급품과 구호 인력을 실어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동료 뉴욕 항공사 Atlas Air 의 후의에 힘입어 추가로 110 톤 분량의 보급품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L. Parrin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처한 재난과 파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극기심으로 이 험난한 복구 과정을 진행하는 우리 미국인 동포들의 강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특히 어려움이 더한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긴요한 식량과 보급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작업의 공동 회장을 맡은 여성 국회의원 Nydia Velázquez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규모 선적은 집과 기반시설과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뉴욕주가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 섬과의 구호 협력을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확고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작업의 공동 회장을 맡은 하원의원 Marcos Cresp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성공적으로 운반된 이 구호물자는 허리케인 마리아 피해 복구과 생활 재건을 위해 분투하는 섬 주민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고대하며, 주지사님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이웃들은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복구 과정에서 언제나 뉴욕 주민들이 함께 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역사회에 남긴 폐허를 딛고 생활을 바닥부터 재건해야 하는 길고 험난한 복구 과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브롱크스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 주민들의 기부로 마련된 이 긴요한 보급품을 선적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로부터 우리 푸에르토리코 가족들에게 구호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진두지휘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적은 어려움에 처한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해 그간 뉴욕주가 벌여온 수많은 구호 활동 가운데 최근의 사례입니다. 지난 주,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응급 의료용품을 배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Ricardo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님의 요청에 따라,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에 파견될 준비가 된 100 명 이상의 의료 인력 팀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복구 및 재건을 돕기 위해 시민, 기업, 산업계 파트너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프로그램인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에 대단히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유니세프 USA(UNICEF USA) 및 UPS 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 UPS 는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민들이 기부한 10 만 병이 넘는 생수를 배송했습니다. 유니세프 USA(UNICEF USA)는 또한 정수용 정제, 물통, 비누, 치약, 세제, 생리대 등을 포함한 기본 위생 용품을 약 6 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상 보급품 키트를 운송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의 주도급 기업 단체인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을 참여시켜 뉴욕 커뮤니티 신탁회사(New York

Community Trust)에 푸에르토리코 구호 및 재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가장 시급한 가구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리케인 마리아가 남긴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재건을 돕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지역 자선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에는 최소 1 만 달러의 기금과 그에 상당한 현물 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가 현장에 배치한 구호 인력과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방위군 헌병대 124 명
- 주 방위군 병사 60 명
- 블랙호크 헬기 4 대
- 항만청 직원 70 명 이상
- 주경찰 50 명 이상
- 뉴욕 전력청 전문가 20 명 이상
-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드론 파일럿 2 명

이번 주말 선적 이전에도 뉴욕은 생수 150,000 병, 통조림 4,000 통, 아기 물티슈 17,000 팩, 기저귀 4,000 팩, 발전기 10 대 등을 이 섬에 보낸 바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webpage)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